벤처OS를 씽씽 돌리는 우리들의 유틸리티

벤처기업도 컴퓨터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돌아가는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다. 각 부서의 벤처인들이 그 공간 안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며 '벤처OS'를 씽씽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 운영체제에 두루 사용되는 유익한 유틸리티를 통해 벤처만이 가진 힘과 역량을 확인해 보자.

예술가의 눈 ◎ 전략기획팀, 멀티미디어 유틸리티

어느 조각가는 조각이란 단순히 돌을 다듬어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돌 속에 감춰진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전략기획팀은 예술가의 그런 심미안을 가진 사람들이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취사선택해 전략을 짜고, 기업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는 모습이 멀티미디어 유틸리티와 닮아 있다. 아름다운 영상과 소리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유틸리티처럼 유익한 정보와 자료만을 찾아 재가공해 다른 팀원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멀티미디어 유틸리티와 참 많이 닮았다.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예술가의 시선을 가진 이들은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멀티미디어 유틸리티이다.

어린아이의 스케치북 ◎ 연구개발팀, 이미지 유틸리티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그림판. 선과 점을 채우고 색을 입혀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윈도우의 그림판처럼 연구개발팀은 벤처기업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이미지 유틸리티 같은 존재이다.

작은 밀알 하나로도 텅 빈 도화지에 풍성한 밀밭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그림도 금방 다시 그려내는 무한한 가능성의 연구개발팀은 이미지 유틸리티와 닮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간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열정으로 작품을 만드는 이들은 벤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순수만점 스케치북이다.

모험가의 구두 ◎ 마케팅팀, 인터넷 유틸리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지만 벤처인에게 모험심이 없다면 제대로 된 벤처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험심이 있다고 한들 세상으로 나갈 구두 한 짝이 없으면 모험심은 가슴 속에서 화병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 유틸리티라는 도구를 통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케팅팀이 있기에 벤처기업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구두끈 단단히 조이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마케팅팀은 벤처라는 모험가의 든든한 두 발 끝 튼실한 구두다.

내과의사의 청진기 ◎ CEO, 시스템 유틸리티

병이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법. 쉽게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병폐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여러 시도를 통해 우리 기업문화를 변화·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벤처기업의 CEO들이다. 이들은 창의와 도전이라는 벤처정신 그대로를 기업문화에도 적용시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픈 곳을 진단하고 제거함으로써 기업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치 컴퓨터에서 악성코드를 제거해주고,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시스템 유틸리티처럼 이들은 벤처라는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다.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보이지 않는 병환을 진단하는 벤처 CEO들은 '벤처OS'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내과의사이다.